

(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 第3回理事会

平成8年2月

# 「従軍慰安」問題 公式謝罪せよ

2.11を195 修道女千700人がデモ

「韓田女子修道会連行」よと書かれた標旗を掲げてデモした。日本大使館前で賛美歌を歌い折りを捧げた後、慰安婦問題に関する標旗の報告事項の履行の政府レベルの公式謝罪と賠償の材料書に慰安婦問題を要求通りに記述することなどを求めた村山首相あての公開書簡と全員の署名を大使館員に手渡した。デモに参加した修道女たちはその日の夜も、明洞駅

「韓田女子修道会連行」よと書かれた標旗を掲げてデモした。日本大使館前で賛美歌を歌い折りを捧げた後、慰安婦問題に関する標旗の報告事項の履行の政府レベルの公式謝罪と賠償の材料書に慰安婦問題を要求通りに記述することなどを求めた村山首相あての公開書簡と全員の署名を大使館員に手渡した。デモに参加した修道女たちはその日の夜も、明洞駅



賛美歌を歌いデモする修道女たち(4日、ソウル)

## 「정신대」 국제여론화 공헌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추진

제13회 여성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申慈秀씨(45, 연세대학교교수)는 「연극여성」의 대표교수이자 「정신대」의 대표교수로서, 국제여론화 공헌으로 활동하였다. 그동안 여성외교의 진흥에 노력하고 유엔군위안부문제 심상을 유엔 등에 널리 국제여론화하는데 힘쓰는 활동을 해온 여성계의 큰 인물이다.



15일 오후 3시 동아일보사 17층 동아홀에서 상을 받기 위해 그는 「사실 정신대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무엇이 있을 때 왜 이런데 혼자만 상을 받게 되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녀는 가를 열린 북경 세계여성회의와 참가자들은 정신대문제를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국제심포지엄에서 논리정연하고 유감없는 열의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북경에서는 보스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호응을 보였으며, 국제회의에 가면 유엔 평화 주요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북경회의에서도 가장 주요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아직 국가배상문제가 남아있지만 일본측이 이 문제를 진감해 부인해오다 강압적 범죄임을 시인했고 정신대실상을 담은 유엔인권위

보고서가 곧 나오게 된 것은 신과입니다. 이북여대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여성운동에 눈을 들었던 그는 워싱턴 미국 및 거스더에서 「여성의 생존 서비스의 국제발전」이라는 논문으로 산학협력상을 받던 뒤, 강단과 여성단체에서 힘을 아끼지 않고 일해왔다. 「아직까지도 이혼과 실직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참가자에 100% 전 남편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하지만 할 자라는 대로 더욱 노력을 생각입니다.」을 해는 정신대문제와 관련, 일본의 민간기금보상안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거두고 「여성외교」를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펼칠 계획. 경찰연구소장을 지냈고 경찰청장에 뛰어난 서정원(사)과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高美蘭>

東京 徐京錫 陽川甲乙 吳正心 徐梅

45 羊蹄山

인사부

193.3.7  
鄭素卿

종군위안부 증언집 펴낸 정진성 회장

"종군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의 피를 토하는 듯한 증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데 감사를 느낍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집 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출판사)을 펴낸 정진성연구회 정진성 회장(여성언어 교수 사외직)은 "1년 남짓 증언을 채록해 펴낸 증언집 1이 역사적 자료로 차려대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대의 꼭대기층 나이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지금은 60~70대가 된 할머니 19명과 한뜻인 삶이 생생하게 담긴 <강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나온 '종군위안부 증언집'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집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신고된 1백여명의 생존자들 가운데 연락이 가능한 40명을 지난해 1월부터 회원 6명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를 10여차례씩 만나 증언을 채록했지요. 그러나 증언을 끌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 할머니들에게 종군위안부 시절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이니까요."

정 회장은 생존자들을 만나고 증언을 채록하면서 '하루빨리 정신대자료 공개 세력화'와 '한 단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책'했다고 한다. 한국여성 최대의 수난사이자 이른 예사의 기록인 '종군위안부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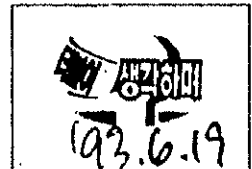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록모금본부는 오는 25일 문화의 밤 행사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이 소식이 신문에 알려지자(한겨레신문 16일자) "그동안 돈을 못내서 미안하다. 이제 기금을 내겠다. 나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운동을 더 지속하기 바란다"고 격려와 아쉬움을 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억 목표액 5분의1도 안되었는데 그만두면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더 지속하기 바란다"는 우려와 질책의 일출도 해주셨다. 신문의 "중도하차"라는 제목이 국민의 감정에 충격을 준 모양이다.

일반 국민의 자선에 촉발해 끌려 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여 이 관

5천만~1억원을 앞다투어 내는 기업들이 이러한 민족사적 의미를 가진 모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토록 냉담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커다란 여분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호응저조 목표포체위

단순한 자선사업에 비해 자신의 가치관만이 표현되는 행위가 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일까? 아니면 정부와 상관없이 순수 민간단체가 벌이는 모금이 때문에 눈치를 필요 없었기 때문일까? 관계가 없을 때에도



기로 되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이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다시는 '위안부' 운동을 벌일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이 운동이 가져온 중요한 진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 지원법 제정은 정신대문제대책 위원회와 기금모금본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환영할 일이다.

생활지원법제정 성과염어

다만 제정시기가 생활기록모금본부가 활동을 개시할 시점과 일치하다 보니 국민모금운동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반 국민은 이제 정부가 나섰으니까 국민성금은 필요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신대 할머니 돕기 관심을

심들을 구체적인 참여로 모아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감할 수 없다.

지난 6개월간 모금운동에 참여한 1억1천여만원의 기금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6백여명의 사람이 10만원 이상의 기금을 냈고, 지난달 22일 거리문화원 마당에서 모금할 때는 많은 시민이 열성적으로 참여해 하루에 6백만원이 모금되기도 했다.

모금운동 25일 마감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일반 국민이 이 운동에 냉담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나라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벌이는 모금운동에서 이 정도의 모금액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냉담한 쪽은 기업이었다. 원래 10억원의 동원료 상정했을 때 기업본부에서는 1억원을 1천명의 사회 각층 인사들의 참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9억원 미만을 작은 돈의 국민성금으로 하고, 8억원 정도를 기업의 성금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모금이 저조하게 된 것이다. 연말 끝우이웃돕기 모금에는

李素卿 李素卿



이 비경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록모금 본부 사무차장

자신의 소산에 따라 뜻있게 돈을 쓸 수 있는 기업가가 문민시대의 기업가상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업모금본부는 우리가 10억원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해서 결코 "중도하차"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비록 목표액에 다다르지는 못했는지라도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지원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초기의 뜻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업모금본부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5월 정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만들어 생존 피해자가 개인에게 5백만원의(위자료) 및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

기금모금본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거나 정신대 문제에 대한 민간운동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모금본부가 있기 훨씬 전부터 활동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여전히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신규명활동에 박차를 가해 일본으로부터 회피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일이 남아 있으며 이 일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마음은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정신대 할머니들 가운데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다급한 분들이 많다. 지난 6개월 사이에도 두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국민성금으로 할머니들을 돕는 일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6월 25일 문화의 밤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

△연락처 = 765-7716  
△은행계좌 = 국민 008-01-052-9-412 정신대국민본부, 조흥 32-5-01-158239, 제일 125-10-03-8929, 농협 027-01-439421

사

1992. 5. 22

제 1548호

197-339729

□ 인터뷰 / 도쿄 '남북한 여성토론회' 참가 한명숙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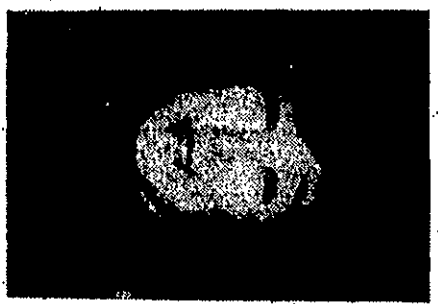
# 종군위인부 진상규명 연대 확인

## 일본대표와 공동명의로 배상(자료관 설치 등) 촉구

“남북한과 일본의 여성들이 일본 정부에 종군위인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일본 도쿄의 오사카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4월22~28일)에 남측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고 지난날 30일 귀국한 한명숙(49) 회장의 발언을 요약한 내용은 토론회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91년 5월 도쿄에서 처음 시작된 이번이 네번째인 이 토론회에서는 남북한과 일본의 여성들이 상호간담과 대화를 잇달아 가졌다. 다음 5차 토론회는 10월 중순에 서울에서 민족 화해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열기로 남북은 일본이 합의했다. 지난날 25일에는 일본 정부가 △종군위인부 문제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일본의 가해죄임을 전사하는 전사관과 자료관 설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 한 대표는 말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91년 전쟁자료관으로 설립된 '오사카 국제평화센터'를 지난날 29일 방문한 대표단 일행은 그곳에서 종군위인부 문제가 대한 일본의 또다른 은폐를 발견했다고 한 대표는 말했다.

“오사카 국제평화센터의 전시된 '무군 재16부대 병원'이라 는 제목의 사진에서 북부에 종군위인부 생활 중인지 남북 대표단으로 참가한 (김복희(67) 할머니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7살 때 모친(한명숙)을

으로 일본 군부대를 따라다니며 생활 때 찍은 것이죠.”

그러나 오사카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을 통감했다는 뜻에서 새웠다는 이 센터에 걸린 벽은 사진의 설명에는 별다른도 “간단원으로 일하는 일본 여성”이 라고 되어 있어도 것이다. 일본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여성들은 종군위인부로 분류했던 조선 여성들로, 전쟁책임을 통감한다고 써온 곳에서도 거짓 설명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확인한 김 할머니를 포함한 남북 대표단은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도쿄 토론회에 앞서 7년 11~20일 미국 오슬랜드 시에서 열린 일본 대표단 명회들의 심포지엄에도 이 대표단은 참가한 바 있는 한 대표는 “생명을 위협하고 남아 기르는 우리 여성들이 힘을 모아 남북통일과 화해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단은 “이 대표단은 6월 중순에 '여성통일 마라톤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명숙 기자

東亞日報 '92. 12. 26

1474  
咸世在神父



한명숙씨 인터뷰  
197-339729

한명숙씨 인터뷰  
197-339729

咸世在神父

北都方電附  
スルノ光景  
日付がある

# 寒気

朝鮮の支那権をめぐり、日本と清国との間で、行われた我が国初の本格的な対外戦争。日本の勝利で、日清議和条約(下関条約)を調印した。

し、大日本海軍をめぐり、班が花園口に上陸する三日、前、旧津和野(現、島根県足尾郡津和野町)海軍工廠の跡地に、本物の写真史として、貴重な資料を得て、従者の宮。

が当し、すでに支授した三十二、百五十億円を差引いた金額を「説明して」いたこと、の食い違いをたじた。大原一三機水相や堤局長は「機務系内部を納得させるため、説明材料として使った」と述べ、自ら「通り」積算根拠を使い分けていたことを認められた。

これに先立ち、新進党の平田米男氏は、政府が昨の段階で損失を見込みながら、一次処理には含まず、二次処理に計上した一兆千億円について、回収の見込みを質問した。政府側は「損失を前提にしたものではない。基金が出れば国庫

## 元慰安婦に補償を

2/6'96 知(9)

元慰安婦に補償を  
加害者処罰も勧告

【ジュネーブ6日】田中英也「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を調査していた国連人権委員会の「女性に対する暴力特別報告官」の報告によると、元従軍慰安婦への国家としての補償と加害者の処罰など六項目を「勧告」として列記した。被害者個人への補償を拒み、民間の基金による「女性

「ホワイトウォーター」を共同設立したスーザン・マクドゥガルさんから出され

スーザン・マクドゥガルさんは一九八〇年代後半、当時の夫や、弁護士だったタッカー・現アーカンソー州知事らと共に、虚偽の申告をして三十万ドルをローン会社から借り、それを担保に、銀行からケーブルテレビ会社の取得費用八百五十万ドルを引き出したとして起

のたの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を進める日本政府の立場とは異なり、向から対立する内容だ。勧告は三月に開会する国連人権委員会に提出される。

(10面に関係記事)

特別報告官はスリランカの法律家、ラディカ・クマラスワミさん。去年七月に国連調査団を率いて訪日し、政府関係者、在日朝鮮人の元従軍慰安婦らから聞き取り調査を行った。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も訪問した。

報告書ではまず、第二次大戦中、旧日本軍が朝鮮半島出身者などに強制した従軍慰安婦は「性奴隷」であると定義し、奴隷の移送は非人道的行為であり、「慰安

安婦の場合の女性や少女の誘拐、組織的強姦(ごうか)んは、明らかに一般市民に対する非人道的行為であり、人道に対する罪にあたる」とした。

その上で、現代にも通じる女性に対する暴力と見られる観点から、六項目を日本政府への「勧告」とした。

①日本帝國憲法が作った慰安所制度は国際法に違反する。政府はその法的責任を認めよ②日本の性奴隷にされた被害者個人に補償金を支払ふ③慰安所とそれに関連する活動について、すべての資料の公開を④被害者の女性個人々々に対し、公開、面による謝罪を⑤教育の場でこの問題の理解を深める⑥慰安婦の墓と慰安所の設置に当たった犯罪者の追及と処罰を可能に限り行う。

また、この勧告とは別に、アジア女性基金についても言及し、「日本政府の道徳的懸念の表れであるが、法的責任の否定の表明である。道徳的視点からはこれを歓迎するが、国際慣習法に基づく慰安婦からの法的な主張を認めたものではない」とした。

「一應」は2面に掲載しました。

素粒子

政策がある。決定過程というものは、税金使ったままの議論があるだけだ。

× ああこの無能の大蔵省をまたいでいるのは青い顔の影だ。我々の運命の影だ(朝日新聞)

× 大震災の阪神・淡路の被災地に深い沈黙がある。何よりも是非を越え、怒りの沈黙がある。

× 「スプレッド」の「現」現は、舞の奥の、広葉樹林の冬木立のなかにあったという。

× 吾輩は出生以来で、この世に生きては心外だ、と今更なことを知りながら生きていた。

# 大統領に召喚状

## 州連邦地裁 大統領選に打撃も

井護人の業務を受け、来月にもクリントン大統領に法廷での証言を求める召喚状を出した。クリントン氏自身にまつわる嫌疑ではないが、大統領選の予備選が

始まるなかで出廷に応じることにすれば、深刻な打撃になりかねない。ホワイトハウスでは政治的影響を最小限にとどめるため、ピテ

「ホワイトウォーター」を共同設立したスーザン・マクドゥガルさんから出され

スーザン・マクドゥガルさんは一九八〇年代後半、当時の夫や、弁護士だったタッカー・現アーカンソー州知事らと共に、虚偽の申告をして三十万ドルをローン会社から借り、それを担保に、銀行からケーブルテレビ会社の取得費用八百五十万ドルを引き出したとして起

「スプレッド」の「現」現は、舞の奥の、広葉樹林の冬木立のなかにあったという。

吾輩は出生以来で、この世に生きては心外だ、と今更なことを知りながら生きていた。



天気  
6日13時発表

96 国民書物フェスティバル参加 96 スターダグズズバルエ国3月公開

# GISELLE

ピーター・ライト版「ジゼル」全2巻

3月14日(木) 10時 東京文化会館大ホール

4月1日(水) 10時 東京文化会館大ホール

お問い合わせ: スターダグズズバルエ国 03-3401-2293

理解を深める⑥慰安婦の墓と慰安所の設置に当たった犯罪者の追及と処罰を可能に限り行う。

また、この勧告とは別に、アジア女性基金についても言及し、「日本政府の道徳的懸念の表れであるが、法的責任の否定の表明である。道徳的視点からはこれを歓迎するが、国際慣習法に基づく慰安婦からの法的な主張を認めたものではない」とした。

耽美の時—福富太郎コレ

# 近代日本画